



# ‘근대路 거닐다’

(로)

13~15일 사흘간 ‘군산문화재야행’

개막식은 개막공연 형식으로 대체

온라인 야행 프로그램도 선보여

군산문화유산의 군산 군산의 여름밤, ‘군산문화재야행’이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화재 거점지역인 군산 내항 및 원도산 일원에서 막을 연다. 군산시의 주최로 개최되는 올해 군산야행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와 행사 진행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예년과 달리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의 신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히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모든 방문객은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고 발열체크를 받아야만 안전하게 문화재 관람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관람객의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막식을 생략하고, 구 조선은행(근대건축관) 뒤 광장에서 진행되는 개막공연 형식으로 대체한다. 개막공연에는 전문 재즈팀과 국악 콜라보 공연이, 2일차와 3일차 공연에는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재즈와 영화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여름밤 감동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경(夜景), 야식(夜食), 야숙(夜宿), 야시(夜市) 등 8야(夜) 테마를 주제로 진행되는 40여개 주요 프로그램과 문화재 관람도 인원 제한, 예약제 등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군산야행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AR로 보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어플 투어 ▲살 수탈 역사체험 ▲군산야행 SNS 이벤트 ▲영상으로 보는 문화재 해설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군산야행 홈페이지(<https://culture-nightgunsan.kr>)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순창 논두렁 음악회’ 유튜브 제작 나서

적성면 벼 팟아트 현장에서 열려

비대면 진행 대신 영상 제작

순창군이 지난달 31일 적성면 황금들녘을 캔버스 삼아 제작한 벼 팟아트 현장에서 코로나 극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관객 초대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대신,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음악회는 개그맨과 우습오케스트라, 지역 음악인 등 30여명이 함께해 풍성함을 더했다. 개그맨 김영화 신홍재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지역 청소년 댄스팀인 엔젤과 입업이 첫 포문을 열었다. 후반부부터 우습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반주에 맞춰 지역 예술인의 색소폰 연주가 더해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출연해 민요와 노랫소리도 직접 부르며 지역민과 하나되는 화합된 모습을 보이게 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음악회는 영상으로 제작해 순창군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에 게재된다. 순창군이 올해 조성한 논그림은 지난해보다

5,000㎡가 늘어난 2만469㎡으로 더욱 웅장한 그림이 연출했으며, 지난해 하나에 불과했던 그림도 두 개로 늘려 좀 더 다양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는 ‘참 좋은 순창에서 웃어요’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순창을 대표하는 섬진강과 강천산, 구장군 폭포 등의 모습을 담아내 순창을 표현했다면, 올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드넓은 황금들녘을 헤엄치는 고래를 표현했다. 눈을 헤엄치는 고래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바다처럼 넓은 황금들녘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상상하다보면 관광객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논그림의 기초재료가 된 오색벼의 추수가 끝나면, 추수후 나온 쌀로 불우이웃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어서 논그림이 주는 관광효과와 더불어 지역사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순창 적성면 논그림은 면적이 넓다보니 현지 논두렁에서는 그림을 감상할 수 없고, 체계적 정상으로 올라가야 그림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익산문화관광재단, 용안생태습지 SNS 탐방이벤트

8월 21일까지 진행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이 용안생태습지 방문 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를 8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익산의 힐링 여행지 용안생태습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방법은 용안생태습지 내 수련을 중심으로 가족 또는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거나 셀카를 찍어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리뷰를 올린 후 SNS 주소(링크)를 익산문화관광재단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시는 이벤트 참가자 중 ‘좋아요’ 및 ‘공유’ 횟수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여 Family 부문(자녀와 부모, 3인 이상), 연인 및 친구 부문,

솔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은 전체 3가지 부문 중 1개 팀(30만원)을 선정하고 금상은 각 부문별로 1팀씩(20만원), 은상 각 부문별 2팀씩(10만원), 동상 각 부문별 3팀씩(5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참여상으로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SNS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최근 용안생태습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하얀색과 분홍색의 나비바늘꽃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다양한 꽃을 식재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면서 관광명소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온더테이블 간담회’ 성료

상하농원서 전문 셰프단 초청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달 30일 상하농원 퍼머시빌리지에서 새로운 식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 셰프단 초청 ‘온더테이블 간담회’를 열었다. ‘온더테이블 간담회’는 지역의 청년농부, 식도락가를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 셰프단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식문화 커뮤니티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사례 공유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 셰프단으로 참석한 안희정 셰프는 “청년 농부가 소개한 고창의 식재료를 활용해 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더테이블’은 고창의 새로운 식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목



적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레시피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된 레시피는 오는 8월 시연회를 통해 공개되며, 레시피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륵사지 녹유 서까래 막새



녹유 잔과 잔 받침



녹유 용얼굴무늬 기와

## ‘귀한 빛, 고운 색’

내일부터 국립익산박물관서

‘녹색 유약, 녹유’ 특별전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신상호)은 8월 4일~11월 22일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녹색 유약, 녹유(綠釉)’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유’란 도자기 표면에 녹색과 청색을 내는 데에 사용하는 유약을 말한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 ‘유리(琉璃)’라고도 불렀던 녹유는 중국 한나라 때 만들어져 국내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생산됐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첫 유약이다. 백제는 6세기 초부터 녹유를 입힌 도기를 생산했고, 백제 녹유는 더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미륵사는 녹유 기와로 장식한 최초의 불교 사원이라는 점에서, 녹유는 미륵사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이번 특별전은 국내 고대 녹유 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은 최초의 전시로, 우리나라 첫 녹유 유적이자 미륵사지 녹유막새의 전모를 처음으로 공개해 더욱 주목된다. 전시에는 미륵사지 출토 녹유 서까래 막새를 비롯해 녹유 뼈항아리(국보 제125호), 녹유 잔과 잔받침(보물 제453호), 사천왕사지 녹유신장상 등 총 177건 2,077점이 선보인다. 제1부 ‘녹유, 미륵사를 물들이다’에서는 우

리나라 첫 번째 녹유 기와인 미륵사지 녹유 서까래 막새의 위용을 소개한다. 미륵사는 녹유기와의 최초로 사용한 불교사원이다. 녹유기와는 미륵사 대부분의 건물지에서 1,300여 점이 발견됐다. 제2부 ‘녹유, 불국토를 점령하다’에서는 고대 삼국시대 불교사원에서 사용했던 녹유문화재들을 전시한다. 불교경전에서는 부처의 정토 세계를 ‘유리로 된 땅’이라 묘사했는데, 불교사원을 빛나는 녹유로 장식한 것이 곧 부처의 정토세계를 구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제3부 ‘녹유, 권위와 부의 상징이 되다’는 녹유 그릇과 기와가 출토된 유적의 성격과 함께 주 소비계층의 경향을 살펴보는 주제다. 녹유는 백제와 신라의 왕경인 부여와 경주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에서도 산성과 분묘 등 지배계층의 공간에서 출토되었다. 녹유로 물들인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당시 지배계층들이 향유했던 고급

문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4부 ‘우리나라 첫 번째 유약을 만들다’에서는 녹유의 성분과 제작법에 대해 알아본다. 당진 구룡리, 부여 쌍북리, 경주 손곡동, 물천리 유적 등 백제와 신라 가마 유적에서 출토된 녹유 기들과 제작 도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첫 유약인 녹유의 제작법에 대해 알 수 있다. 한편 국립익산박물관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의 언론공개회는 국립익산박물관 유튜브 채널 및 누리집, SNS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며, 전시 기간 중 담당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온라인 전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전을 포함한 전시 관람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박물관에서도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익산문화원, 전북기계공고와 익산기행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이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인 ‘익산기행’을 실시했다. 지난 달 31일 열린 익산기행에는 전국 최고의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두승) 진로체험 동아리 ‘허클베리핀’ 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학생들은 문화예술의 거리와 왕궁리유적지, 보석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을 돌아보며 평소 책에서 접했던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호 원장은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이 익산기행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참가자 박기연(1학년) 학생은 “책에서만 보았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실제로 보면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총 10회 익산기행을 실시하여 참가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도내 초등생 대상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

전북문화관광재단, ‘거꾸로 방학’ 운영 단체 21일까지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도내 초등학생(3~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거꾸로 방학’을 운영할 단체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총 8개 내외로 선정해 1천만원~1천3백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거꾸로 방학’은 도내 초등학생에게 창의성과 감수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창의·융합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단체·시설·기관이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성으로도 지원가능하다. 김민덕 문화예술교육팀장은 “2019년 문화과 미술 중심으로 하는 예술캠프를 통해 초등학생의 내재된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술캠프를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비대면 창의·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



학생의 예술적 상상력이 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http://www.jbct.or.kr))나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4, 745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